

2024-03-04 (2024-10호)

03월 04일 로이터 뉴스레터

▶ 달러/원 주간 전망

• 달러·위안 자극할 이벤트 주목

서울, 3월4일 (로이터) 박예나 기자 -

이번 주 달러/원 환율은 새로운 모멘텀을 대기하며 방향성 탐색전에 나설 전망이다.

예상되는 주간 환율 범위는 1,320-1,340원이다.

지난달 달러/원 환율은 박스권 장세를 고수했다. 미국의 견조한 고용과 소비, 그리고 물가를 확인한 글로벌 금융시장은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금리 인하 신중론을 받아들이면서도 인공지능(AI) 산업이 견인하는 증시 강세가 견인한 리스크 온 무드를 형성했다. 이에 달러는 방향성을 잃어버렸다.

연준이 주목하는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표가 예상과 맞아떨어지면서 시장참가자들은 미국 고용지표로 시선을 옮기게 됐다.

이번 주 후반에 미국 3월 비농업부문 고용지표가 발표되는데 지난 2월 시장을 충격에 빠뜨릴 정도로 견조한 결과를 나타낸 이후 나오는 만큼 시장 관심은 높을 전망이다. 로이터 전망에 따르면 미국의 2월 취업자 수는 20만개 증가해 1월 35만3,000개보다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고용지표에 앞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통화정책에 관한 의회 증언도 예정돼있어 이 결과에 따라 글로벌 금융시장은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

또한, 금주는 중국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도 개막된다. 전인대를 통해 중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와 경기부양책 등에 시장은 관심을 맞출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따른 중국 금융시장 반응 따라 원화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유럽중앙은행(ECB) 정책회의도 있어 유로 움직임에 따른 달러 반작용도 감안해야한다.

2월 역내 수급 동향은 대체로 균형적이었다는 평가가 내려졌다. 2월 무역수지는 40억달러대로 흑자 규모가 확대됐다.

당분간 수급을 둘러싼 시장 긴장감이 확산될 여지는 높지 않은 가운데 금주 원화는 달러와 위안 눈치를 살피면서 상황 따라 변동성을 높이는 장세를 예상하는게 무난해보인다.

(편집 문윤아 기자)

((yena.park@thomsonreuters.com ; +82(010) 62147029;))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4.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 채권 주간 전망

• 美 경제지표 반전 여부와 中 양회

서울, 3월4일 (로이터) 임승규 기자 -

이번주 채권시장은 미국 고용지표 결과 등을 반영하며 등락할 전망이다. 2월 중 미국 경제지표 호조로 무겁게 눌려왔던 시장이 반전의 계기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지난 주말 국고채 3년물 금리는 3.38%를 기록해 전주말(3.374%)보다 0.6bp 상승했고 국고채 10년물 금리는 3.475%를 기록해 전주말(3.468%)보다 0.7bp 올랐다.

미국의 1월 소비자물가지수(CPI)와 생산자물가(PPI) 상승률이 컨센서스보다 높게 나온 게 채권 투자심리를 지속적으로 압박했다. 경제지표가 아무리 좋아도 2% 물가상승률 달성이 확실하다면 정상화 차원의 조기 인하가 가능할 수 있다는 논리의 전제가 흔들렸기 때문이다.

3월 금리 인하는 고사하고 '이러다 7월까지 밀리는 것 아니냐'는 두려움이 끼어들면서 매수세가 상당히 위축되고 말았다.

개인소비지출(PCE) 지수 발표에 따라 미국 국채수익률이 한 번 더 10bp 이상 급등할 수 있다는 우려가 시장을 압박했다.

다만 PCE 지수가 시장 예상 수준으로 나오면서 일단 부담은 덜 상황이다.

현지 시간으로 6일 나오는 2월 ADP 고용지표와 1월 JOLTs 구인·이직 보고서와 주말에 나오는 비농업 부문 고용지표를 가늠하며 분위기의 반전 여부를 타진하는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상하원 청문회에 이틀 연속 나오는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발언도 관건이다. 다만 연준이 데이터 의존적 정책결정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는 상황에서 파월의 발언보다 더 중요한 건 경제지표일 수밖에 없다.

국내시장참가자들 입장에서선 4일 개막하는 중국 연례 최대 정치행사 양회의 흐름이 중요하다. 양회 결과가 위안화 움직임에 영향을 미치고 위안화 움직임이 원화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때문이다.

달러/원 환율이 지금처럼 높은 수준에서 횡보하는 이상 국내 통화정책 담당자들은 더 신중할 수밖에 없다.

도비시한 금통위 이후 보여지고 있는 시장의 차별함은 높은 수준의 환율과 연계해 볼 수밖에 없다. 향후 위안화의 움직임에 관심을 집중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편집 문윤아 기자)

((seunggyu.lim@thomsonreuters.com ; +822 6936 1466;))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4.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 주간 세계 5대 이슈

⊙ 미국 2월 고용 및 파월 증언

미국 기업 실적 시즌은 마무리되고 있지만 오는 6일과 7일에는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의회 증언, 8일에는 미국 2월 고용지표가 예정돼 있어 투자자들이 설 틈은 많지 않다.

견조한 경제가 금리 인하 베팅을 약화시키는 가운데서도 AI의 비즈니스 잠재력에 대한 기대감은 주가를 사상 최고치로 끌어올렸다.

고용 시장의 강세가 지속되거나 연준의 매파적인 메시지가 나오면 투자자들은 금리 인상이 시장과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를 떨쳐버리기 어려울 수 있다. 이러한 영향 중에는 국채 수익률의 상승이 있으며, 이것이 지속될 경우 주식에 혼란을 줄 수 있다. 올해 10년물 수익률은 40bp 상승했다.

로이터 사전 조사에서 이코노미스트들은 미국의 2월 취업자 수가 20만개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1월에는 35만3,000개 증가했었다.

⊙ 슈퍼 화요일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아직 제대로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여러 주에서 동시에 경선이 치러져 각 당 대선 후보 선출 과정에서 최대 행사로 꼽히는 '슈퍼 화요일'은 향후 예측에 있어 중요한 날이 될 것이다.

올해 '슈퍼 화요일'은 3월5일이며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캘리포니아, 텍사스, 노스캐롤라이나, 버지니아 주 등 총 16개 주에서 경선을 진행한다.

한편 부채 한도 문제도 다시 불거졌다. 지난 29일 미국 의회는 부분적인 연방정부 셧다운을 피하기 위한 단기 임시방편 조치를 승인했지만 그 시한은 일주일에 불과하다.

미국 국채 시장은 지난주 1,690억달러의 국채 발행을 비교적 쉽게 흡수했다. 그러나 정부 재정을 둘러싼 정치권의 양극화 현상은 국가 부채가 34조달러에 달하고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줄 수 있다.

선거가 있는 해에는 공격적인 재정 통합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낮으며 일시적인 지출 조치로 버틸 가능성이 더 높다.

⊙ 中 전인대 개막

중국의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5일 연례 회의를 시작하는 가운데 무너져가는 부동산 부문을 되살리고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최악의 디플레이션 속에 침체된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한 새로운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중국은 이번 전인대에서 올해 약 5%의 성장 목표를 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주식시장.CSI300은 2월 초에 기록한 5년 만의 최저치에서 회복하여 6개월간의 하락세를 끊고 2022년 말 이후 최고의 월간 실적을 기록했다. 주요 동인은 국가 주도의 주식 매입과 공매도 규제 강화였다.

하지만 앞서 5년 만의 최저치까지 하락한 것이 중국의 조치가 부족한 데 대한 실망감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잊기 어렵다. 시장은 앞으로 어떤 조치들이 나올지 계속 주목하고 있다.

⊙ ECB 정책회의

오는 7일 유럽중앙은행(ECB) 정책회의도 주목된다. 정책결정권자들이 금리 인하를 논의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말을 반복할지, 아니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둘지에 시장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

작년 9월 이후 금리는 동결된 상태이며 ECB는 다음 금리 인하가 있더라도 트레이더들이 예상하는 것보다 늦어질 것이라고 주장하며 금리 인하 논의를 미뤄왔다.

임금 압력은 완화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높다.

올해 초 올 한 해 150bp의 금리 인하를 반영했던 시장은 이제 ECB가 6월 금리 인하를 시작해 올해 약 90bp의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유로존 경제가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ECB가 연준보다 먼저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ECB는 일반적으로는 연준보다 나중에 움직인다.

⊙ 英 예산안

제러미 헌트 영국 재무장관은 채권 시장에 또 다른 혼란을 일으키지 않고 올해 총선을 앞둔 리시 수낙 총리를 돕기 위해 6일 예산안에서 세금을 인하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리즈 트러스 전 총리의 '미니 예산' 위기에 대한 기억은 여전히 생생하고 그 이후 재정 전망은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에 6일 의회에 서게 될 헌트 총리가 쓸 수 있는 방법은 많지 않다.

언론의 추측이 소득세 인하 또는 사회보장세율 인하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가운데 투자자들은 헌트가 재정적 '여유'를 전부는 아니더라도 대부분 사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美주식시장/주간전망

• AI 열풍 속 가치주에도 저가 매수세 몰릴 듯

뉴욕, 3월4일 (로이터) -

인공지능(AI)에 대한 열기가 월가를 휩쓸고 있는 가운데 일부 투자자들이 전통적인 주식시장 영역에서 저가 매수를 노리고 있다.

일반적으로 장부가치 또는 주가수익비율과 같은 지표에서 할인된 가격으로 거래되는 기업으로 정의되는 가치주는 인공지능이 성장 중심의 동종 기업들 주가를 끌어올리는 가운데 대체로 뒤쳐져 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산업 및 소재와 같은 일부 가치 중심 섹터의 상승세가 가속화되고 있다. 투자자들은 이것이 S&P500지수의 랠리가 몇몇 기술 및 성장주를 넘어 확대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생각하고 있다.

리서치어필리에이즈의 주식 부문 최고투자책임자인 퀘 응우옌은 "장기적으로 가치주에 대한 투자 사례는 분명히 존재한다"며 "이 기업들은 여전히 매우 매우 저렴하고 많은 기업이 이미 사업과 재무제표를 구조 조정하는 어려운 과정을 거쳤다"고 말했다.

올 들어 현재까지 S&P500지수는 7.7% 상승하여 사상 최고치를 나타내고 있다. S&P500 가치지수는 연초 대비 3.3% 상승해 S&P500 성장지수의 11.6% 상승률에 뒤처지고 있다. 하지만 최근 몇 주 동안 가치주 중심의 일부 업종이 살아날 조짐을 보였다.

지난달 S&P500 산업업종은 제너럴일렉트릭 및 하우멧에어로스페이스의 상승에 힘입어 7.1% 상승했다. 같은 기간 전체 지수는 5.8% 상승했다.

재료업종은 2월에 벌칸머티리얼스와 에코랩 주도로 6.7% 상승했다. 치폴레멕시칸그릴, 랄프로렌 등이 최근 강세를 보이면서 소비자 재량주는 9% 가까이 올랐다.

가치주가 다른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평가돼 있다는 점은 큰 매력이다. 헬스케어업종은 18.9배, 에너지업종은 12.2배에 거래되며 전체 S&P500의 20.8배를 훨씬 밑돌고 있다.

노던 트러스트 자산 관리의 글로벌 주식 책임자인 마이클 헌스타드는 S&P500과 그 랠리를 주도한 성장 및 기술주인 이른바 '매그니피센트 7' 그룹의 주가수익비율이 너무 가파르게 상승했다고 말했다.

의료 및 에너지와 같은 가치 중심 업종에서 포지션을 늘려온 헌스타드는 "매그니피센트 7의 경우 하방 위험이 크다"고 밝혔다.

투자자들은 여전히 연방준비제도가 올해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통화정책이 너무 빨리 완화되면 예상보다 강한 경제가 인플레이션을 재점화할 수 있기 때문에 연준이 금리를 얼마나 빨리, 얼마나 크게 인하할지에 대한 기대치를 낮춘 상태다.

시장은 향후 연준 정책을 가늠하기 위해 이번 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의회 증언과 미국 2월 고용지표 결과를 주시하고 있다.

(김지연 기자)

((jiyoun.kim@thomsonreuters.com))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4.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 금주 국내 경제 주요 일정

3월4일(월)

- ⊙ 통계청: 2024년 1월 산업활동동향 (08:00)

3월5일(화)

- ⊙ 한국은행: 2023년 4/4분기 및 연간 국민소득(잠정) (08:00)
- ⊙ 한국은행: 총재·부총재 한국은행-KDI 노동시장 세미나 (09:00)

3월6일(수)

- ⊙ 한국은행: 2024년 2월말 외환보유액 (06:00)
- ⊙ 통계청: 2024년 2월 소비자물가동향 (08:00)
- ⊙ 금융위원회: 제6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 개최 (10:00)

3월7일(목)

- ⊙ 기획재정부: 부총리 은행장 간담회 (10:00)

3월8일(금)

- ⊙ 한국은행: 2024년 1월 국제수지(잠정) (08:00)
- ⊙ 한국은행: 총재 BIS 총재회의 (8일~13일, 스위스 바젤)

• 금주 해외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

서울, 3월04일 (로이터) - 금주 해외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

날짜	시간	국가	지표	기간	로이터 전망	이전수치
3월2-9일	00:00	미국	자동차판매	2월		3.010M
3월4일	18:30	유로존	셴틱스지수	3월		-12.9
3월5일	08:30	일본	도쿄 CPI	2월		1.6%
3월5일	10:45	중국	차이신 서비스업 PMI	2월		52.7
3월5일	18:00	유로존	HCOB 서비스업 PMI 확정치	2월		50.0
3월5일	19:00	유로존	생산자물가 MM	1월		-0.8%
3월5일	23:45	미국	S&P글로벌 서비스업 PMI 확정치	2월		51.3
3월6일	00:00	미국	내구재주문 수정치 MM	1월		-6.1%
3월6일	00:00	미국	ISM 서비스업 PMI	2월	53.3	53.4
3월6일	19:00	유로존	소매판매 MM	1월		-1.1%
3월6일	21:00	미국	모기지마켓지수	2월26일 주간		171.5
3월6일	22:15	미국	ADP 전국고용보고서	2월		107k
3월7일	00:00	미국	JOLTS 구인이직보고서	1월		9.026M
3월7일	08:50	일본	외환보유고	2월		1,291.8B
3월7일	12:00	중국	수출 YY	2월		2.3%
3월7일	12:00	중국	수입 YY	2월		0.2%
3월7일	17:00	중국	외환보유고	2월		3.219T
3월7일	21:30	미국	챌린저 해고건수	2월		82.307k
3월7일	22:30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2월26일 주간	215k	215k
3월8일	05:00	미국	소비자신용	1월	10.00B	1.56B
3월8일	08:30	일본	가계지출 YY	1월		-2.5%
3월8일	08:50	일본	경상수지 NSA JPY	1월		744.3B
3월8일	19:00	유로존	GDP 수정치 QQ	4분기		0.0%
3월8일	22:30	미국	비농업부문 취업자 수	2월	200k	353k
3월9일	10:30	중국	PPI YY	2월		-2.5%
3월9일	10:30	중국	CPI YY	2월		-0.8%

• 금주 해외 경제 주요 이벤트 (괄호 안은 한국시간)

3월4일 (월)

- ⊙ 패트릭 하커 필라델피아 연방은행 총재, 미국교육위원회 서밋에서 연설 (5일 오전 1시)

3월5일 (화)

- ⊙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BOJ) 총재, 2024년 FIN/SUM 행사서 연설 (오후 1시)

3월6일 (수)

- ⊙ 캐나다 중앙은행 금리 결정 (오후 11시45분)
- ⊙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 하원 금융위원회 반기 통화정책 청문회 (자정)
- ⊙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방은행 총재, 2024년 전미 합동 커뮤니티 재투자 컨퍼런스서 연설 (7일 오전 2시)

3월7일 (목)

- ⊙ 유럽중앙은행(ECB) 금리 결정 및 발표 (오후 10시15분), 크리스틴 라가르드 총재 기자회견 (오후 10시45분)
- ⊙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 상원 은행위원회 반기 통화정책 청문회 (자정)
- ⊙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방은행 총재, 유럽경제금융센터 강연시리즈에서 화상 강연 (8일 오전 1시30분)

3월8일 (금)

- ⊙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은행 총재, 런던정치경제대학 주최 토론회 참석 (오후 9시)

▶ 지난주 로이터 한글 뉴스 서비스 주요 기사

• CLS결제 달러/원 스왑 거래 제출시간 새벽 2시 연장 잠정 결론

서울, 2월29일 (로이터) 박예나 기자 -

오는 7월 외환시장 구조 개선 정식시행에 앞서 외환당국은 회계와 결제 등 세부 요인을 지속, 점검하며 보완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외환거래 연장과 해외 소재 외국금융기관(RFI)의 시장참여라는 큰 제도 변화를 앞두고 외환당국은 이달부터 시범운용을 실시하면서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이슈들을 시장참가자들과 논의하며 보완 중이다.

그간 은행들이 회계 및 규제 불확실성이 크다고 문제제기했던 한국시간 오후 12시부터 익일 새벽 2시까지 거래에 대해 금융당국은 이를 직전일 당일 거래로 회계처리할 수 있도록 회계기준을 명확히 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당국과 시장참가자들에 따르면 외환거래 시간 연장에 따른 결제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외환동시결제시스템(CLS) 결제 제출시간 변경을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CLS 결제대상 거래 제출시간은 22시이지만, 금융결제원과 시장참가자들 간의 논의 끝에 달러/원 스왑거래 외환거래 마감시간인 새벽 2시로 연장하기로 잠정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RFI가 런던 마감시간까지 CLS 결제시스템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시장 접근성을 제고하려는 당국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탐넥 스왑거래는 외환거래 결제 리스크가 더 높은 만큼 이를 줄이기 위해 CLS 결제대상 거래 제출시간을 20시로 당기는 한편, 백오피스 대응과 NON-CLS 결제 방식 전환 등 특정 조건을 갖춘 은행들에 한해 22시까지 예외적으로 접수를 받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 당국자는 "시범운용을 통해 CLS 결제와 관련한 문의가 많았는데 외환 인프라 측면에서 보완해야 하는 점으로 금융결제원과 관련 은행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논의한 결과 현행 스왑 시간은 10시에서 새벽 2시로, 탐넥은 20시지만 조건부로 22시까지로 조정하는 쪽으로 잠정 방향을 잡았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결제원의 시스템 개발 및 내부 테스트 시행 등 후속 조치 이후 오는 6월 시범운용 때 조정된 시간을 적용, 테스트해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편집 문윤아 기자)

((yena.park@thomsonreuters.com ; +82(010) 62147029;))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4.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 외시협, RFI 대행은행 참고 계약서 완성... 곧 배포 계획

서울, 2월28일 (로이터) 박예나 기자 -

서울외환시장운영협의회(외시협)는 해외 소재 외국금융기관(RFI)의 대행기관이 RFI와 업무대행 계약을 체결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계약서를 만들어 필요 기관에 곧 배포할 계획이다.

외환당국은 오는 7월부터 국내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할 RFI가 해외 외국환 업무 취급기관으로서 확인, 보고의무를 직접 이행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동일계열 내 외은지점, 선도은행 등 국내 외국환은행을 업무 대행기관으로 지정해 의무 이행을 위탁하도록 했다.

이 같은 대행업무는 외환시장 구조 개선안 시행과 함께 처음으로 도입되는 제도인 만큼 국내은행들이 계약서 작성부터 애로를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를 감안해 외시협은 각 대행은행들이 참고할 수 있는 기본 계약서를 검토해왔고 이번에 내용을 완성해 대행은행 업무가 가능한 곳에 곧 배포할 예정이다.

한 시장관계자는 "외시협 차원에서 대행은행이 RFI와 체결할 수 있는 참고가 될 수 있는 계약서를 만들었는데 거의 완성됐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RFI와 대행기관 간 업무대행에 관한 표준계약서가 아닌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외환당국은 국내 외국환은행들의 대행기관 업무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기관별 확인 의무를 간소화하고 명확히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제3자 FX거래 허용으로 혼선이 발생할 수 있었던 외환거래 당사자의 외화·원화계좌 명의의 동일성을 확인하는 부분은 RFI의 의무임을 명확히 했다.

한 당국자는 "대행기관으로서 정확하게 어떤 업무를 해야 하는지 몰랐던 부분이 명확해진 측면이 있고,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을 책임져야 하는지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해 그동안 여러 논의를 거쳐 정리가 됐다"고 말했다.

(박예나 기자: 편집 임승규 기자)

((yena.park@thomsonreuters.com ; +82(010) 62147029;))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4.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 (단독) - 스탠다드차타드, 中 아웃바운드 채널 통한 고객 신규 투자 중단

홍콩, 2월27일 (로이터) -

스탠다드차타드가 지난주부터 중국 내 고객들이 '적격국내기관투자(QDII)' 프로그램을 통해 역외 상품에 신규 가입하는 것을 중단했다고 은행측이 로이터에 보낸 성명에서 밝혔다.

이 은행은 QDII 프로그램에 따른 신규 투자 중단에 대한 설명으로 "상업적 이유"라며 자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이 은행의 이번 조치는 위안화 약세와 중국 경기 둔화로 인해 저축자들이 해외로 자산을 옮기면서 중국 당국이 자본 유출을 막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2006년에 시작된 QDII는 중국 자산가 및 기업 고객이 역외 펀드, 채권 및 기타 구조화 상품에 투자할 수 있도록 자격을 갖춘 국내의 기관이 사용하는 몇 안 되는 역외 투자 채널 중 하나다.

중국 외환 규제 당국의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2006년 이후 스탠다드차타드는 총 28억달러의 QDII 쿼터를 배정받았으며, 이는 외국계 은행 중 HSBC의 47억3000만 달러, 씨티그룹의 35억달러에 이어 세 번째로 큰 규모다.

(김지연 기자)

((jiyoun.kim@thomsonreuters.com :))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4.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 (단독) - 정치적 극단주의, 美 유권자들의 가장 큰 우려 - 로이터/입소스 조사

워싱턴, 2월28일 (로이터) -

미국 유권자들의 최대 관심사로 정치적 극단주의나 민주주의 위협에 대한 우려가 부상했으며,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조 바이든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 약간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새로운 로이터/입소스 조사에 나타났다.

25일 마감된 3일간의 여론 조사에서 응답자의 약 21%가 "정치적 극단주의 또는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 미국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라고 답했으며, 이는 경제(19%)와 이민(18%)을 선택한 응답자보다 약간 높은 비율이었다.

바이든측 민주당 지지자들은 극단주의를 압도적으로 1위로 꼽은 반면, 트럼프의 공화당 지지자들은 이민을 압도적으로 선택했다.

무소속 응답자의 거의 3분의 1이 극단주의를 가장 큰 우려 사항으로 꼽았고, 5명 중 1명이 이민을 꼽아 그 뒤를 이었다. 경제는 3위를 차지했다.

또 응답자의 34%는 바이든이 극단주의에 대처하는 데 더 나은 접근법을 가지고 있다고 답했으며, 그보다 적은 31%가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의 선두 주자인 트럼프가 더 잘 대처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에서 바이든의 지지율은 37%로 임기 중 가장 낮은 수준에 근접했으며 한 달 전보다 1%포인트 하락했다.

로이터/입소스 조사는 전국을 대표하는 표본을 사용하여 성인 1020명의 온라인 응답을 수집했으며 오차 범위는 약 3%포인트다.

(김지연 기자)

((jiyoun.kim@thomsonreuters.com :))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4.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 (단독) - 하마스, 40일 휴전과 인질 교환 포함된 제안 검토 - 소식통

두바이, 2월27일 (로이터) -

하마스는 파리에서 열린 가자지구 휴전 회담에서 모든 군사 작전을 40일간 중단하고 팔레스타인 포로와 이스라엘 인질을 10대 1 비율로 교환하는 내용이 담긴 초안을 제안받았다고 정통한 한 고위 소식통이 26일(현지시간) 로이터에 밝혔다.

소식통은 휴전안에 따르면 가자지구의 병원과 빵집이 수리되고, 매일 500대의 구호 트럭이 가자지구로 들어가게 되며, 이재민들을 수용하기 위해 수천 개의 텐트와 캐러밴이 전달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 초안에는 또 하마스가 여성, 19세 미만 어린이, 50세 이상 노인, 병자를 포함한 이스라엘인 인질 40명을 석방하고,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수감자 400여 명을 석방한 뒤 재체포하지 않는 내용이 담겨있다고 소식통은 밝혔다.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스라엘이 3월10일 저녁 시작돼 4월9일 저녁에 끝날 예정인 라마단 기간 동안 군사 활동을 하지 않는데 동의했다고 말했다.

(신안나 기자)

((anna.sheen@thomsonreuters.com))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4.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 (분석) - 치솟는 日 증시 속 투자자들 中 -> 日 이동

도쿄, 2월27일 (로이터) -

경제 및 지정학적 우려들로 인해 투자자들이 중국에서 빠져나오면서 대다수는 일본으로 자금을 돌리고 있다.

일본 증시 닷케이지수는 27일 오전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후 소폭 반락한 상태다.

일부 투자자들은 단지 중국에 작별을 고하고 싶어 하지만, 일부는 일본과 중국의 긴밀한 경제 관계를 활용해 이익을 얻고 있다.

반도체 대기업 도쿄일렉트론과 유니클로 모기업 패스트리테일링 등 중국에서 상당한 입지를 갖고 있는 닷케이 대형주들은 지난 12개월 동안 주가가 급등했고, 도쿄일렉트론과 패스트리테일링은 각각 126%, 63% 상승했다. 중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 자회사를 두고 있는 아식스는 약 91%, 중국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일식 레스토랑 체인 세이즈리야는 62% 상승했다.

과거에 중국 주식을 보유했지만 지금은 미국의 제재를 우려해 거리를 두고 있는 투자자들은 중국 매출액이 크거나 중국에 기반을 둔 일본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더 나은 선택이 되고 있다고 말한다.

필라델피아에 있는 위즈덤트리자산운용의 리첸 렌 이사는 일본 주식 매수는 "현재 미국 정치 환경에서 논란의 여지가 적다"고 말했다.

그는 "고객이 일본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비록 익스포저가 중국에 대한 일종의 프록시라고 하더라도, 포트폴리오의 성과가 좋지 않은 경우 고객이 정치적 질문을 할 가능성이 훨씬 적다"라고 설명했다.

일본의 최대 무역 파트너인 중국은 일본 무역에서 5분의 1의 비중을 차지하며, 미국과 호주에 이어 세 번째로 큰 일본의 투자 대상국이다.

두 나라는 경제적으로 서로 얽혀 있지만 금융 시장은 매우 대조적이다.

중국의 블루칩 중심 CSI300지수는 이번 달에 5년 만의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부동산 시장 문제와 대규모 부양책의 부재로 인해 약 1년 만에 18% 하락했다.

반면 일본 증시 니케이지수는 연일 사상 최고치를 기록 중이며, 일본 경제와 기업 지배구조 개혁에 대한 밝은 전망에 힘입어 앞으로 더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LSEG 데이터에 따르면 2023년 4월 이후 중국 역외 펀드에서 약 65억9000만달러가 유출된 반면, 일본 역외 펀드에는 지난달 63억달러가 유입돼 작년 총 78억4000만달러에 이어 올해도 유입액이 증가했다.

시드니에 있는 플래티넘 자산 관리의 포트폴리오 매니저인 제이미 할스는 유아용품 제조업체인 피존 코퍼레이션을 소유하고 있다.

이 회사는 영업이익의 대부분을 중국에서 창출하고 있는데, 할스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꾸준히 감소했던 중국 본토의 결혼 건수가 지난해 10% 증가한 점을 지적했다.

그는 "또 다른 주요 분야는 중국 수요에 크게 노출되어 있는 대부분의 반도체 공급망"이라며 "최근 매우 견고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도쿄일렉트론과 반도체 테스트 장비 제조업체인 어드밴테스트 등 일본 반도체 관련 대기업들은 올해 닛케이지수가 17% 상승하는 데 가장 많이 기여했다.

골드만삭스의 수석 일본 주식 전략가인 브루스 커크는 "전 세계적으로 많은 자금이 중국에서 나와 일본 시장으로 유입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과의 관계는 일본 기업들에게 큰 부표가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다. 중국 뷰티 시장에 의존하는 화장품 회사 시세이도의 실적은 중국 경기 둔화로 타격을 입었고 주가는 1년 만에 32% 하락했다.

애널리스트들은 기업 지배구조 개혁이나 대형주 실적과 같은 펀더멘털이 향후 일본 증시로의 투자 유입이 지속될지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지연 기자)

((jiyoun.kim@thomsonreuters.com))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4.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 (칼럼) - 日 개입 의지 시험하는 펀드들의 엔화 숏 베팅

올랜드, 플로리다, 2월26일 (로이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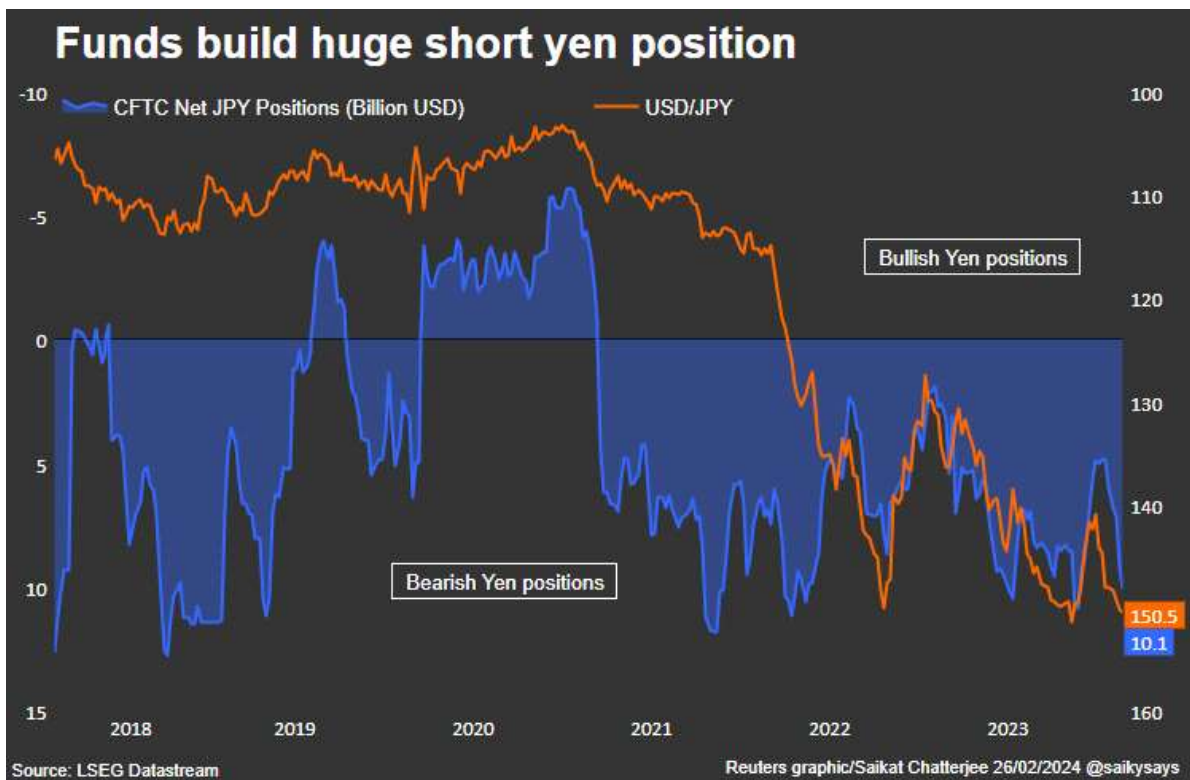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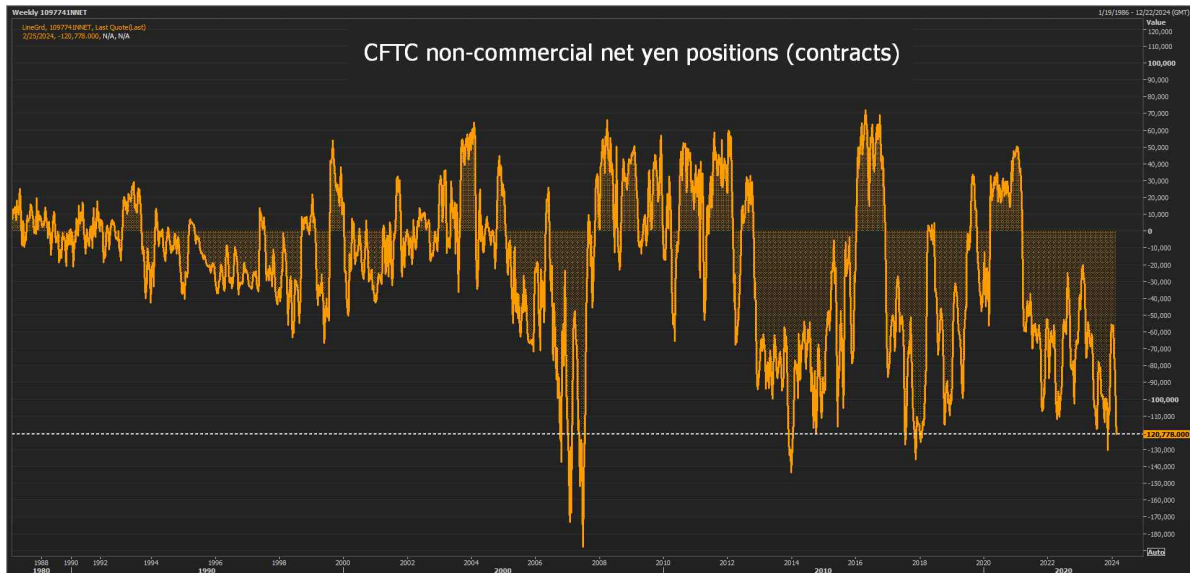
헤지펀드들이 엔화에 대한 숏 베팅을 급격히 늘리면서 일본 당국의 엔화 절하에 대한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

최근 일본 정부가 환율의 '급격한' 움직임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경고 수위를 높였지만, 2022년과 비교

했을 때 대규모 엔화 매수 개입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투기적 시장 포지셔닝은 일본 당국이 행동에 나설 수 있는 변수 중 하나다.

최근 상품선물거래위원회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20일로 끝나는 주에 펀드들의 엔화 순 숏 포지션이 직전주 11만1,000여계약에서 12만계약 이상으로 증가했다.



숏 포지션은 기본적으로 자산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는 베팅이고, 롱 포지션은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베팅이다. 헤지펀드들은 통화에 방향성 베팅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엔화는 크게 약세를 보였다. 엔화는 올해 들어 지금까지 달러 대비 6% 절하됐으며, 달러/엔은 150엔 위로 상승해 1990년 이후 최고치인 152엔을 가시권에 두게 됐다.

엔화는 펀드 등 투자자들이 미-일 금리 및 채권 수익률 격차에 베팅하고 이 격차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올해 최악의 실적을 기록한 주요 통화가 됐다. 시장은 이제 일본은행이 정책을 '정상화'하는 속도가 느리거나 연방준비제도가 많은 사람이 기대하는만큼 금리를 인하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주요국 정책 조합이 어떻게 되든 지금까지는 헤지펀드들에 유리한 환경이다. 최근 자료에서 CFTC 엔화 순 숏 포지션은 작년 11월 이후 최대이자 6년 만에 두 번째로 큰 규모를 나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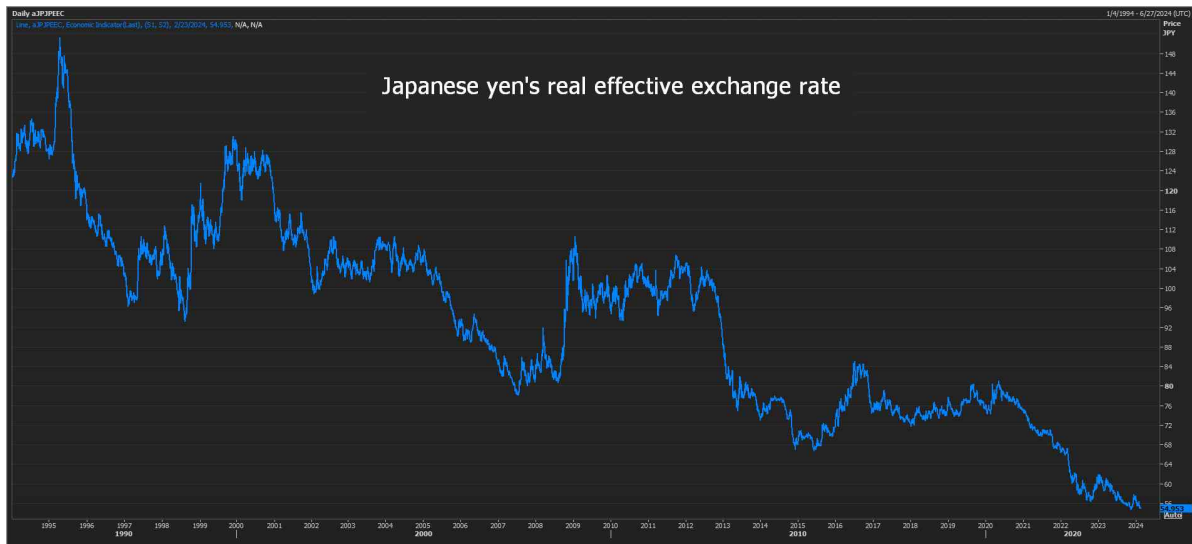
더 중요한 것은 일본이 1998년 이후 처음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해 총 600억달러의 자금을 쓰며 엔화 약세를 막았던 지난 2022년 9월과 10월보다 현재 엔 숏 규모가 더 크다는 점이다.

헤지펀드들은 연초 이후 엔화 순 숏 포지션을 두 배로 늘렸으며, 이는 엔화가 34년 만의 최저치로 향한 주된 원인이 됐다.

엔화는 다른 주요 통화 대비로도 사상 최저치 부근을 가리키고 있으며 무역 가중치 기준으로도 수십 년 만의 최저치 경신을 목전에 두고 있다.

일본은 이제 막 기술적 경기침체에 진입했고 금리는 여전히 마이너스인 반면, 나머지 대부분의 선진국 금리는 수십 년 만의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그럼 엔화 약세가 정당한 것일까?

일본 당국자들은 '펀더멘털'과 상관없이 투기꾼들이 엔화 숏 포지션을 계속 확대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이다.



(김지연 기자)

((jiyoun.kim@thomsonreuters.com))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4.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 비트코인 월간 상승률 2020년 이후 최고 전망

싱가포르, 2월29일 (로이터) -

상장지수펀드의 자금 유입에 따른 랠리로 사상 최고치에 근접한 비트코인이 2월 중 3년여 만에 최고 월간 상승률을 향하고 있다.

간밤 63,933달러까지 상승했던 비트코인BTC=은 오전 거래에서 61,000달러대에 거래되고 있다.

월간 상승률은 45% 이상으로 2020년 12월 이후 가장 큰 폭이다.

이더리움도 동반 상승하며 2월 중 50%가 올랐다.

토니 사이카모어 IG마켓츠 애널리스트는 이같은 상승 모멘텀이 69,000달러 테스트 및 돌파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이 경우 비트코인은 2021년 11월 기록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게 된다.

Bitcoin breaches \$60,000, highest in over two years

The cryptocurrency is up over 30% since the U.S.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approved the first-ever exchange traded funds, paving the way for investors to gain exposure to the market.



Note: Latest price as of Feb. 28, 10:05 a.m., EST
Source: LSEG Datastream | Reuters, Feb. 28, 2024

(신안나 기자)

((anna.sheen@thomsonreuters.com))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4.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